여론을 통해 본 경제위기 시대의 가족

EAI · 한국리서치 공동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09-04〉 데이터분석

정한울 · 정원칠

EAI 여론분석센터

2009. 5. 8

여론으로 본 경제위기 시대의 가족

경제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가정의 위기완충기능 평가

EAI·한국리서치 〈4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2009/04)〉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EAI 여론분석센터_ **정한울·정원칠**

들어가며

"가족은 사랑입니다", "가족은 희망입니다" 경제 위기 심화 이후 가족을 소재로 한 광고 카피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첫 라디오 연설을 통해 "가족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며 힘들 때일수록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자고 강조한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도 한국에서의 이혼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현실을 "개탄스러운 일"로 규정하고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세계가 깜짝 놀랄 기적을 이룬 원동력도 바로 우리 민족 특유의 가족정신이었다"며 가족을 그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14차 라디오 연설, 2009년 5월 4일 KBS 라디오).

경제위기 국면 하에서 가족의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미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국가경제의 위기가 가계경제의 파탄 뿐 아니라 가정해체와 개인 삶의 질의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목격한 바 있다. 가정생활이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은 우선, 대부분의 가정의 경우 가족구성원들의 사회경제활동을 통해 가계경제를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상황은 가족구성원들의 소득감소나 자산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가계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과거 가족이 담당했던 기능을 사회제도나 프로그램에 위임하는 비중이 커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데 경제침체기에 가정경제의 위축은 곧바로 이러한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대가족형태가 급격히 줄고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에 가족이 담당했던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 등의 역할이 빠르게 사회적 제도와 시설에 이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가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필요한 비용과 부담도 증가한다. 한국처럼 복지제도 및 국가의 복지지출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대부분 사적으로 충당하게 되며 결국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사회경제적 능력과 여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제 사랑이나 희망이라는 추상적 개념이나 민족 특유의 가족정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가족이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거나 완화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종합하면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지금 한국사회에서 경제위기는 가족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위기 시대에 가족의 가치에 대해 강조한 것은 이러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상황의 발발

이래 정부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주로 거시적 차원에서 문제진단과 경제회복 방안이 제시되고 사회적 약자층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서도 주로 실직, 임금감소 등과 같은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무역수지의 흑자, 소비심리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의 회복 소식이 들려오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지수 등의 거시적 차원의 경제지표나 정부재정지출의 규모와 같은 객관적 수치들은 그 시기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의 실제 체감하는 고통과 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생활터전에 경제위기가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며 국민 개인이 그로부터 체감해야 하는 고통과 고립감이 객관적 수치가 제공하는 추상화된 희망에 덮일 수 있다.

특히 우리는 '경제위기'라는 국가적, 전 사회적 위협요인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가족의 위기'와 중첩된(overlapped) 이중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4월 정기 테마조사의 주제로 "경제위기와 가족"을 정했다.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이나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거시적 위기진단과 정책논쟁' 과는 다소 거리를 두면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악화가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생활터전이 되는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심각성은 계층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는 지 국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담아내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 만족도

이번 조사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가정생활에 있어 100점의 만족도를 희망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71.1점이었다.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1]

현실 영역에 있어 가족의 경제력이 중요한 만큼 개인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지위에 속하느냐에 따라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할수록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지위가 가정생활을 평가의 주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정의 위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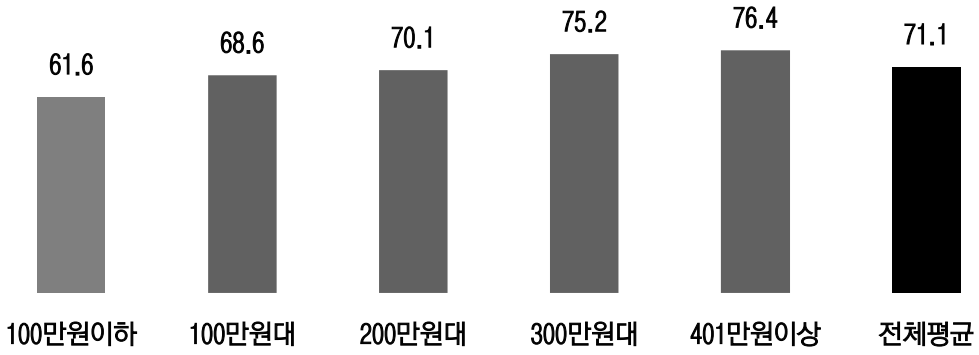
우선, 가정의 소득수준이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월 가구소득이 401만원 이상인 상위소득층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76.4점으로 가장 높았다. 월소득 300만원대 층에서는 75.2점, 200만원 대에서는 70.1점, 100만원대 소득계층에서는 68.6점에 그쳤다. 그러나 월 소득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최하위 소득층에서는 61.6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학력보다 고학력에서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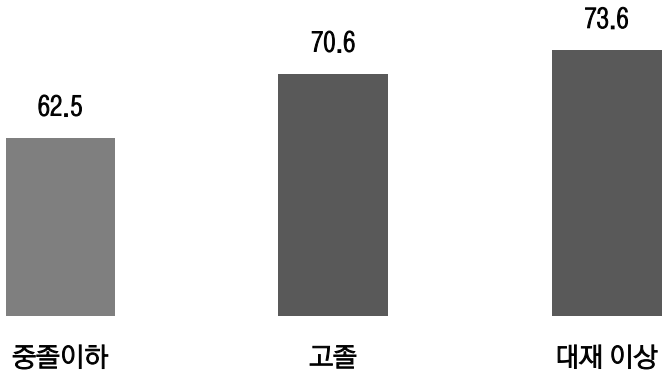
[1] 여기서 만족도 점수는 '매우 만족한다' 에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까지의 4점 척도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각각 100점에서 0점까지의 점수로 환산하여 구한 결과다(0점-전혀 만족하지 않음, 33.3점-별로 만족하지 않음, 67점-대체로 만족, 100점-매우 만족).

이상 응답층에서는 73.6점으로 역시 고학력층일수록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고졸 층에서는 70.7점이었다. 그러나 중졸 이하 학력 층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62.5점이었다. 역시 저학력 취약계층에서 가정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월평균 가구소득 별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점)



[그림 2] 학력별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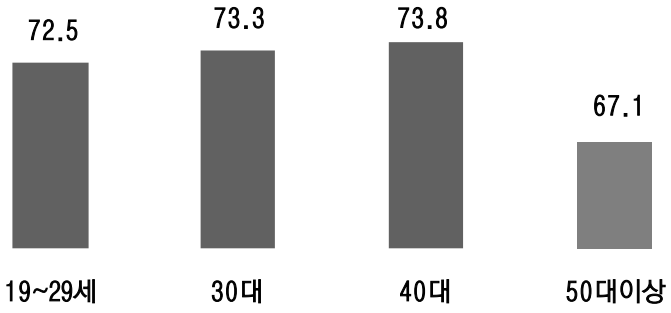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가족만족도 조사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20대 30대 청년기를 거쳐 40대 중년기까지는 가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지만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가는 50대 이상 세대에서 급격히 만족도가 떨어진다. 20대의 경우 72.5점, 30대 73.3점, 40대에서는 73.8점으로 대체로 만족도 점수의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5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차이를 보였다. 만족도 점수가 67.1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낮게 조사되었다.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경우 청년기, 중년기 동안 치열한 사회경쟁에서 살아남고 가정의 기반을 닦기 위해 전력을 다해 온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성장기 물질적 혜택과 교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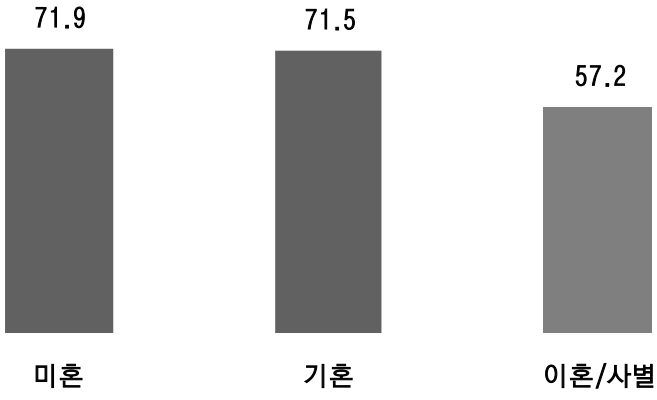
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 저소득층과 저학력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사회에서 정년과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졌다. 사회적 기반 다지기와 자녀교육의 부담에서 벗어나자마자 장년기와 노년기를 준비해야 할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현 시대의 50대야말로 그 어느 세대보다 가정에서 안정과 위안이 필요한 세대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대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사실은 이들 계층이 갖게 되는 사회적, 개인적 상실감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만든다.

가정 내부의 문제도 가정 만족도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최근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이혼 등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가정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주로 20-30대로 구성된 미혼 응답자들의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71.9점이었고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린 기혼 응답층에서는 71.5점이었다. 그러나 이혼/사별의 경우 만족도 점수는 57.2점에 불과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결손가정의 일원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들 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는 노력과 함께 결손가정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림 3] 연령대별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점)



[그림4] 가정형태별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점)



경제위기와 중첩되는 가족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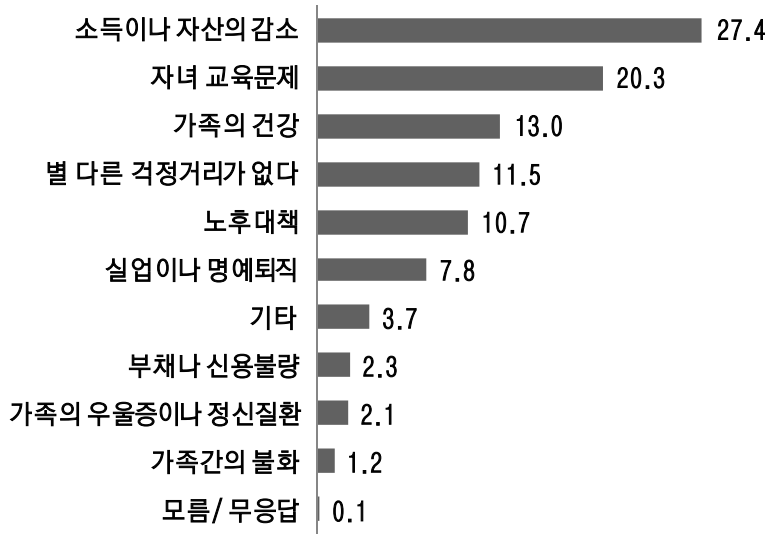
가족과 가정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 기능과 역할과 중첩되는 영역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경제력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경제력이 취약한 가족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보다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강하다.

가정생활 최대 위협요인 : 소득감소, 실직, 부채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가정 내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로 '경제문제' 를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계경제에는 소득이나 자산의 감소, 실업이나 명예퇴직 그리고 부채나 신용불량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응답비율은 37.4%였다. '자녀 교육문제' 를 꼽은 비율도 20.3%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 이라는 응답비율로 15.1%였으며 '노후대책' 이 10.7%였다. 반면, '가족 간의 불화' 를 꼽은 비율은 1.3%로 보기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모름/무응답은 0.1%였다.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다' 는 응답비율은 11.5%였다.

경제문제의 경우 그 자체 문제 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의 발생이나 다른 문제의 강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가정 내 걱정거리에서 경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림 5] 가정 내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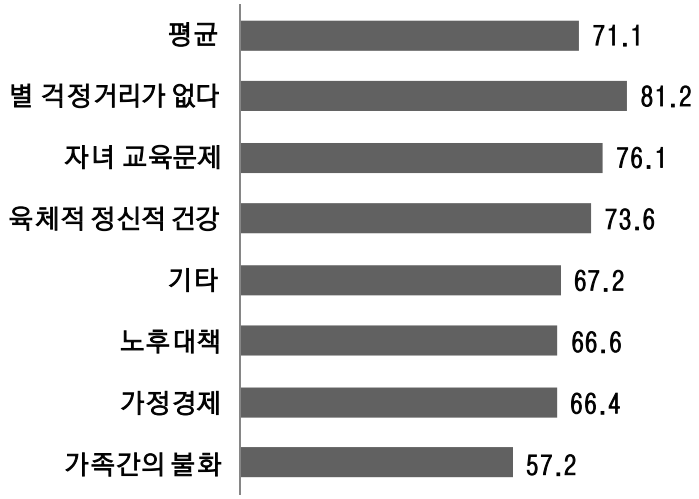


가정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걱정거리 중에서 본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가족 간의 불화 문제' 와 경제고' 및 '노후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족 간 불화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57.2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여러 걱정거리 중 가족 간 불화문제를 본인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응답자는 1.2%에 불과해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 대신 경제와 연관성이 깊은 불안한 가계경제와 노후대책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경제고-37,4%, 노후 문제-10.7%). 실제로 불안한 가계경제 문제를 꼽은 경우에서의 가정생활 만족도 평균 점수는 66.4점이었다. 노후대책을 걱정하는 응답자들의 가정만족도는 66.6점이었다.

반면, 본인 가정의 가장 큰 문제를 자녀 교육문제라고 답한 경우에서는 76.1점,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꼽은 경우에는 73.6점으로 평균 만족도 점수보다 높다. 자녀 교육문제를 다른 걱정거리에 비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20.3%에 달했지만 이것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은 경제문제나 노후 문제 등에 비해 크지 않았다. 별 걱정거리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81.2점으로 가장 높은 가정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그림 6] 가정 내 걱정거리별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점)



계층별 위협요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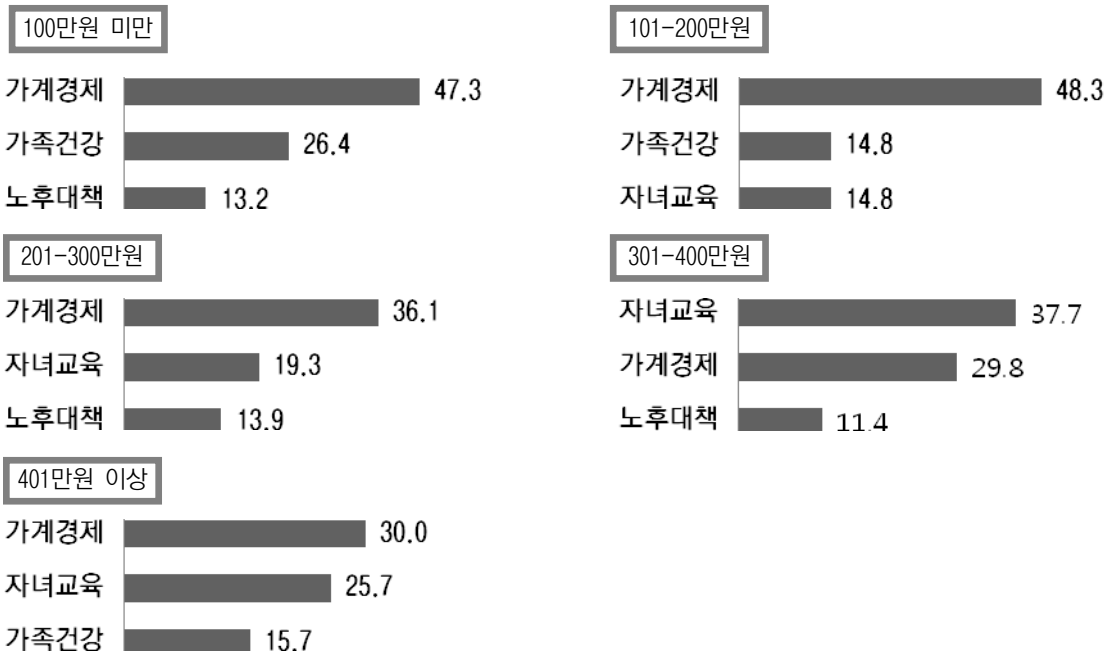
계층별로 가정생활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비교해보면 우선, 소득감소, 실직, 부채와 같은 경제 불안요인은 전 계층, 전 사회집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 국면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특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수준, 학력, 세대별로 독특한 특징들도 발견

된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규모가 낮을수록 가계의 경제고와 가족의 건강을 꼽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가계경제문제와 함께 자녀 교육문제나 노후대책을 걱정하는 비율이 높다. 월 가정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과 100만원대 계층에서는 가정경제의 불안요인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47.3%, 48.3%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가족의 건강 걱정이 그 뒤를 이었다. 100만원 미만 계층에서 26.4%, 100만원대 소득층에서 14.8%였다.

한편 중간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200만원대 소득층과 300만원대 소득층에서는 자녀교육 문제와 노후대책문제가 중요한 걱정거리로 등장한다. 200만원대 계층에서는 역시 가정경제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36.1%로 가장 많았지만 자녀 교육문제가 19.3%, 노후대책 문제가 13.9%로 뒤를 이었다. 300만원대 소득층에서는 자녀교육문제를 고민하는 응답자가 37.7%로 가장 많았고, 가정경제 불안요인을 꼽은 응답자가 29.8%, 노후 대책을 꼽은 응답자는 11.4%였다. 400만원 이상의 상위소득층에서도 가정경제 불안을 꼽은 응답이 30.0%로 가장 많은 가운데 자녀교육문제 응답이 25.7%, 가족건강 문제가 15.7%였다.

[그림 7] 월평균 가구소득 규모별 가정 내 주요 걱정거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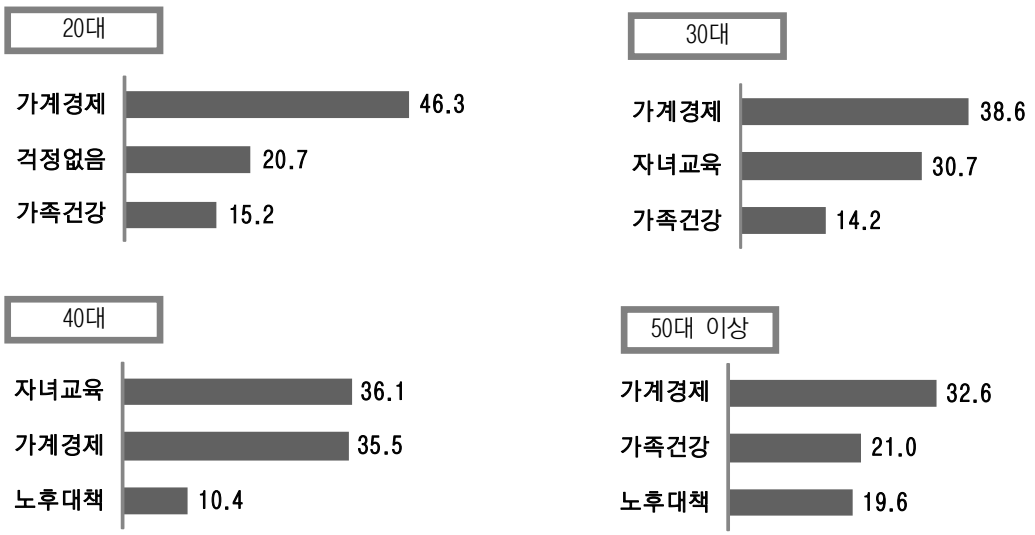


세대별로 보면 19세~29세에서는 가계경제문제를 꼽은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다. 현재 청년실업 문제나 임금삭감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별 다른 걱정거리가 없다는 경우도 20.7%나 되어 가정 문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30대의 경

우에도 가계경제를 꼽는 경우(38.6%)가 가장 많았지만 19~29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자녀 교육문제(30.7%)가 큰 걱정거리로 부상한다. 40대의 경우에서는 자녀 교육문제(36.1 · %)가 불안한 가계경제의 문제(35.5%)를 근소한 차이로 앞설 정도로 대등한 상태이다. 40대부터는 노후대책 문제(10.4%)가 중요한 가정위협문제로 등장한다. 20대나 30대와는 다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50대 이상에서는 자녀 교육문제를 대신해서 건강문제가 등장하면서 응답비율로는 불안한 가계경제(32.6%), 가족의 건강(21.0%) 그리고 노후대책(19.6%)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 및 가정상태 역시 중요한 변수다. 미혼인 경우에서는 가계경제를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고 꼽는 비율이 46.8%였다.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다는 응답비율이 그 뒤를 이어 18.5%였다. 기혼에서는 가계경제와 자녀 교육문제를 꼽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비율은 각각 33.5%와 26.7%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별 특징과 유사한데 미혼응답자의 경우 20대가 주축을 이루고, 기혼가정은 30대부터 50대 이상 가정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혼 또는 사별한 결손가정의 경우, 걱정거리는 양상이 달랐다. 가계경제를 꼽는 응답비율이 43.8%로 가장 높았지만 노후대책을 꼽는 경우도 34.4%나 되었다. 배우자 없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엿볼 수 있는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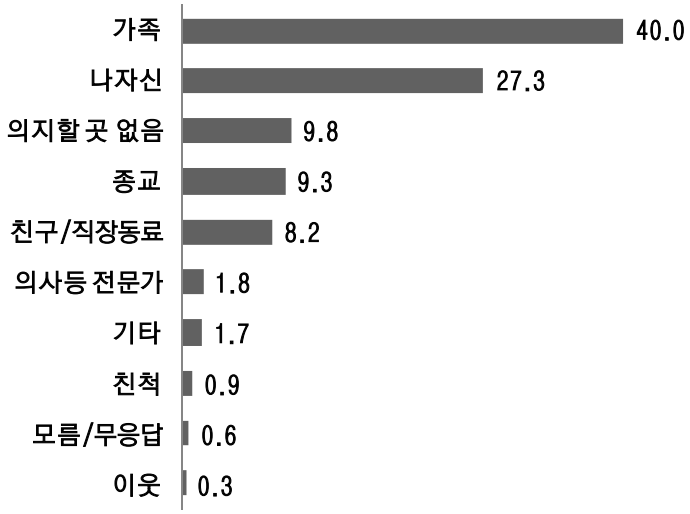
[그림 8] 연령대별 가정 내 주요 걱정거리 (단위 : %)



안전망으로서의 가족 : 취약계층의 이중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주로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본인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 발생시 외부에 기대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가족이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 의지하는 대상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가족' 을 꼽았지만 과반수에 못 미치는 40%에 그쳤다. 대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나 자신' 을 꼽은 경우가 27.3%였으며 '의지할 데가 없다' 는 경우도 9.8%나 되었다. 이는 결국 특별히 의지할 곳이 없다는 의미로 합하면 37.1%에 달한다. 그 외 종교를 꼽은 경우는 9.3%였고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의존한다는 응답은 8.2%였다. 반면, 친척이나 이웃은 의지할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친척을 꼽은 비율은 불과 0.9%였고 이웃을 꼽은 비율은 0.3%였다. 과거에 개인의 문제해결을 돕던 친척과 같은 혈연공동체, 이웃과 같은 거주공동체의 의미가 퇴색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그림 9] 가정 내 걱정거리 해소를 위한 의지 대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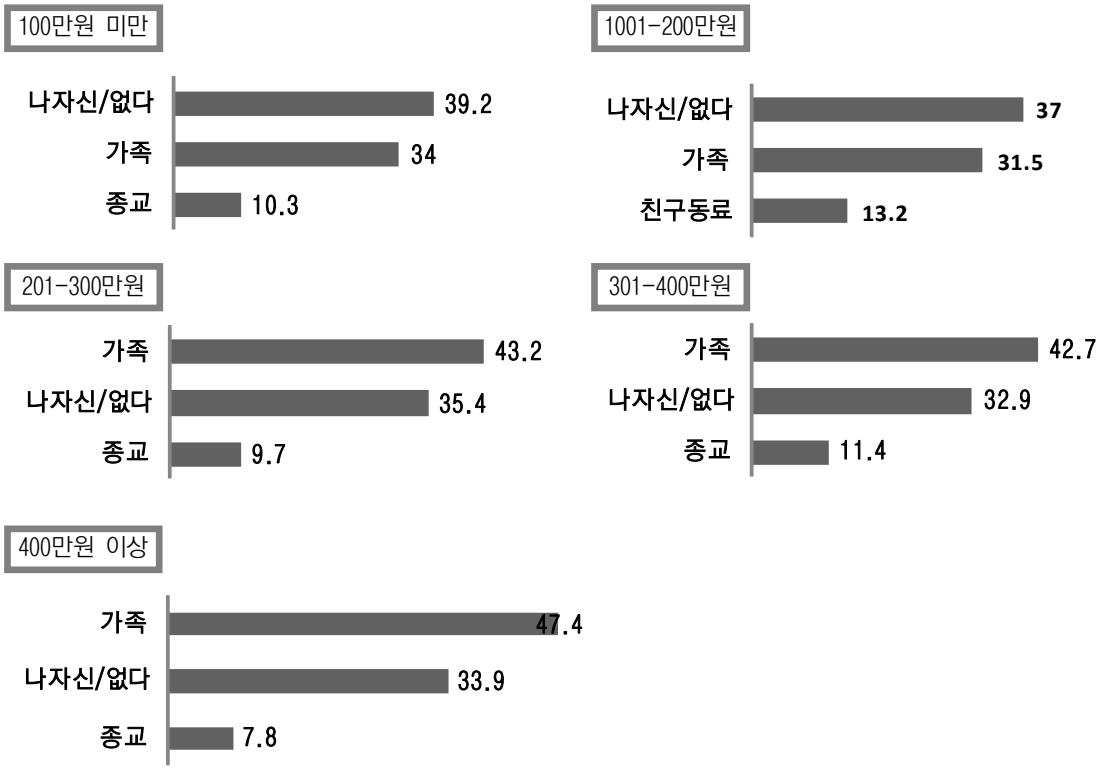
취약계층의 위기발생시 가족 의존도

문제는 취약계층에 속할수록 가족조차 가족문제 발생 시 의존할 만한 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개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의지할 것이 없다는 데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개인은 사회경제적 우환이 가정의 우환과 겹치는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요한 특징이 발견된다.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가족문제 발생

시 의지할 곳이 본인 자신이거나 아예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 100만원 미만 층에서 39.2%, 101만원~200만원 소득층에서 37.0%였다. 가족에게 의지한다는 응답은 각각 34.0%와 31.5%였다. 반면 200만원 이상의 중간소득층은 물론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가족에 의존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다. 201~300만원 소득층에서는 가족 의존비율이 43.2%, 301만원~400만원 소득층에서는 42.7%였고, 401만원 이상 상위소득층에서는 47.4%까지 올라간다. 경제적 여유가 생길수록 가족 의존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소득층에서도 기댈 곳이 없는 응답집단이 적지 않았다. 200만원대 소득층에서 35.4%, 300만원 소득층에서 32.9%,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도 33.9%나 된다. 그 외 기댈 곳이라고는 가족밖에 없거나 특별히 기댈 곳이 없는 응답층들은 대체로 종교에 의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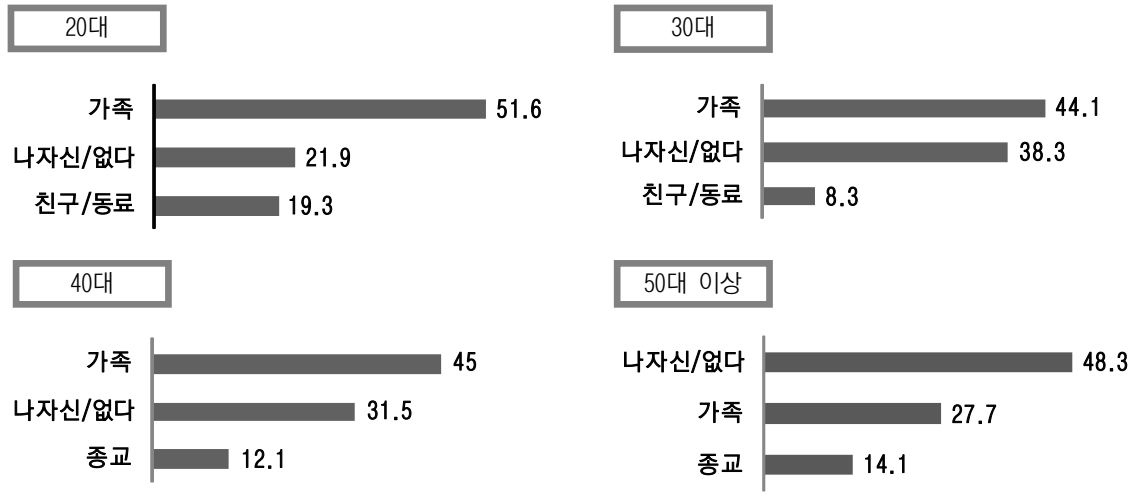
[그림 10] 소득계층별 가정 내 걱정거리 해소를 위한 주요 의지대상 (단위 : %)



세대별로는 19세~29세의 경우 가족이 51.6%였고 본인 스스로 의지하거나 아예 없다는 응답이 21.9%로 높았다. 친구나 직장동료가 19.3%였다. 30대에서는 역시 가족에 기대거나 본인 말고 크게 기댈 곳 없다는 응답 순이었다. 응답비율은 각각 44.1%와 38.3%였다. 40대에서는 가족이 45.0% 그리고 본인 혹은 아예 기댈 곳 없다는 응답이 31.5%였다. 50대 이상에서는 30대나 40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의지의 대상이 본인 자신이라고 답하거나 없다고 경우가 48.3%로 절반가량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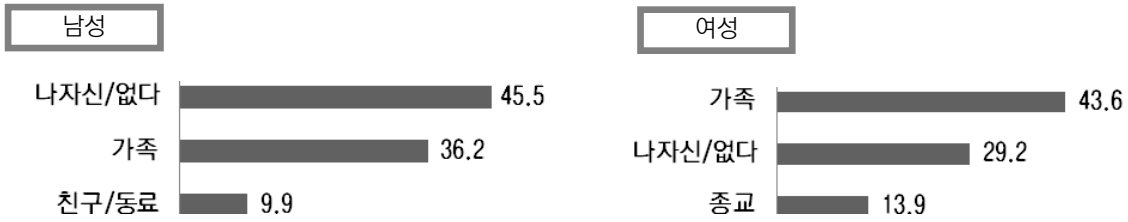
립감을 나타냈다. 주목할 점은 가족 혹은 가족 외에 특별히 의지할 곳이 없을 때 20대~30대의 경우 친구나 직장동료가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종교에 기대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1] 연령대별 가정 내 걱정거리 해소를 위한 주요 의지대상 (단위 : %)



성별로 보면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남성은 본인 자신을 의지 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다고 꼽는 경우가 합해서 45.5%였다. 가족에게 의지한다는 응답은 36.2%였다. 남성의 고립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가족에 의지하는 비율이 많았다.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나 자신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응답비율에는 차이가 크다. 여성은 가족을 꼽는 경우가 43.5%로 남성보다 더욱 높아졌지만 본인 자신만을 의지하거나 의지할 곳 없다는 응답은 29.2%로 상대적으로 낮다. 대신 남성의 경우 친구/동료한테 기댄다는 응답은 9.9%였지만 사회생활의 비중이 낮은 여성의 경우 종교에 의지하는 비율이 13.9%로 높았다. 아직은 남성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성(性)역할 분담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 12] 성별 가정 내 걱정거리 해소를 위한 주요 의지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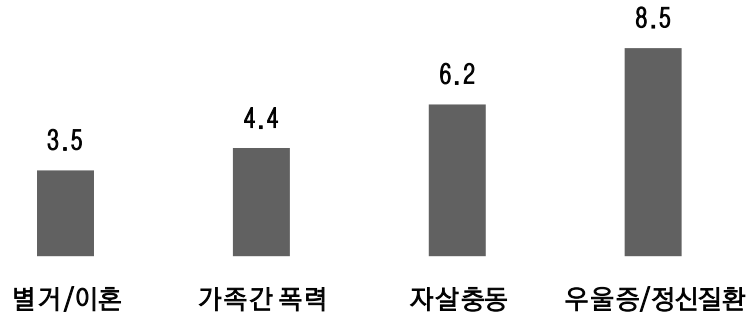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된 가정병리 현상

현재 경제위기는 전사회계층 및 거의 모든 가정에 공통적인 위협요인이 될 정도로 강력하다. 그러나 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특성에 따라 그 위협의 체감도와 충격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로 더 주목받고 있는 자살, 우울증, 가정폭력, 가족 해체 등의 극단적인 가정병리현상을 살펴보면 계층별, 가족 특성별로 체감하는 고통의 편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가정병리현상이 특정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취약성이 심각한 집단과 개인에 대한 정부 및 사회의 집중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 지난 1년간 경험한 가정 내 문제들을 통해서도 가정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가정폭력', '별거/이혼', '우울증 등 정신질환', '자살충동' 등으로 나타나는 가정병리현상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가족 내에서 '별거나 이혼'은 3.5%였고, '가족 간의 폭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4.4%였다. '자살을 생각해보았다'는 경우도 6.2%로 조사되었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응답은 8.5%로 나타났다.

[그림 13] 지난 1년간 가정에서 경험한 문제들 (단위 : %)



가정병리현상에 노출된 계층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가정병리현상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고, 저학력층의 취약계층, 세대별로 가정으로부터 고립감이 큰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극단적인 병리현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우울증 또는 정신질환을 경험한 비율을 보면 10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에서 15.9%였으며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 16.6%였다.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응답비율이 15.0%나 되었다. 이혼/사별한 경우 우울증/정신질환 경험한 비율이 열 명 중 세 명 꼴이었다. 다른 집단에서 응답비율이 10%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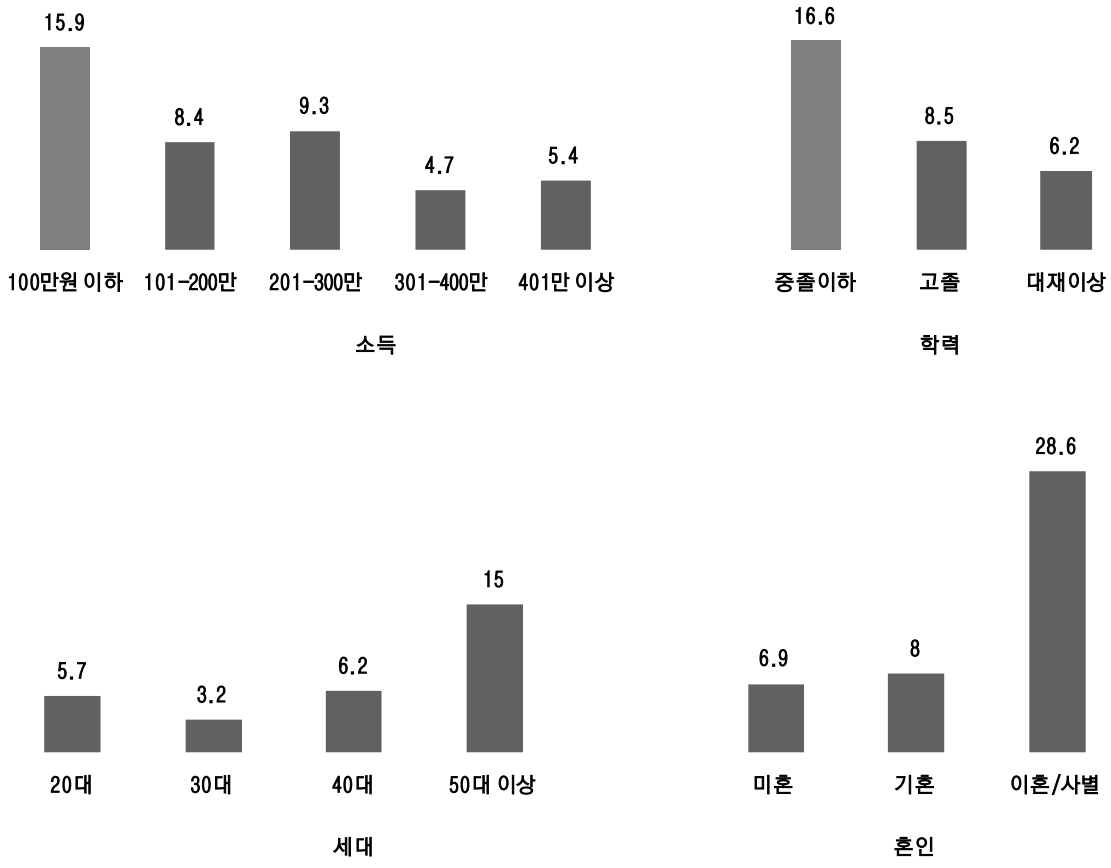
못 미치는 것과 차이가 분명하다.

자살 충동 역시 경향성을 달리하지 않았다. 100만원 이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16.3%가 경험하였다고 답했다. 중졸 이하의 학력층에서 10.8%였다. 전체 응답비율이 6.2%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응답비율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10.7%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혼/사별한 가정에서는 무려 19.4%나 자살충동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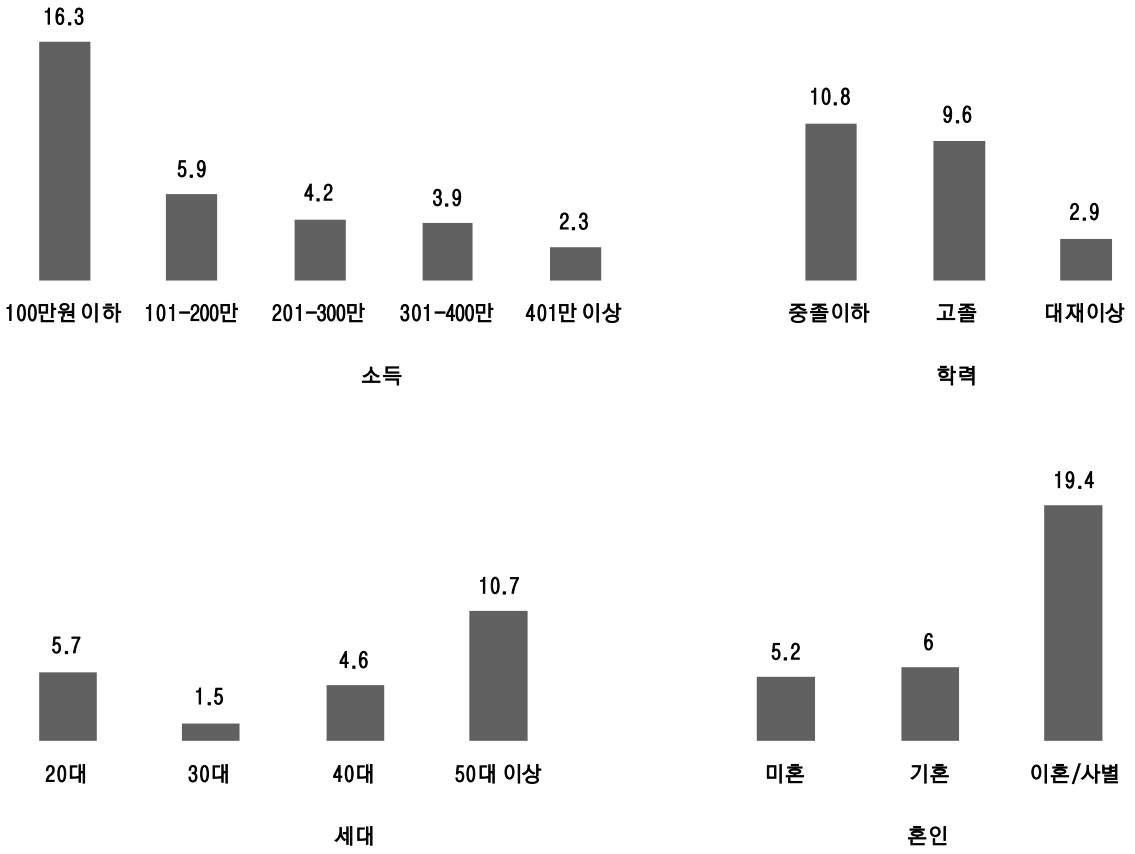
한편 이혼이나 별거 경험을 보면 소득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의 빈곤층에서 4%로서 크게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학력별로 보면 중졸 이하 층에서 6.4%로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다. 결과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가정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의 경험빈도를 살펴보면 역시 10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에서 16.3%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졸 저학력층에서는 12.0%였다. 대재 이상 층에서 2.4%에 그친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가족 간의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응답비율이 7.0%로 다른 세대에 비해 다소 높았다. 다만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결손가정 응답자 중에서는 가정폭력 경험했다는 응답이 3.0%로 높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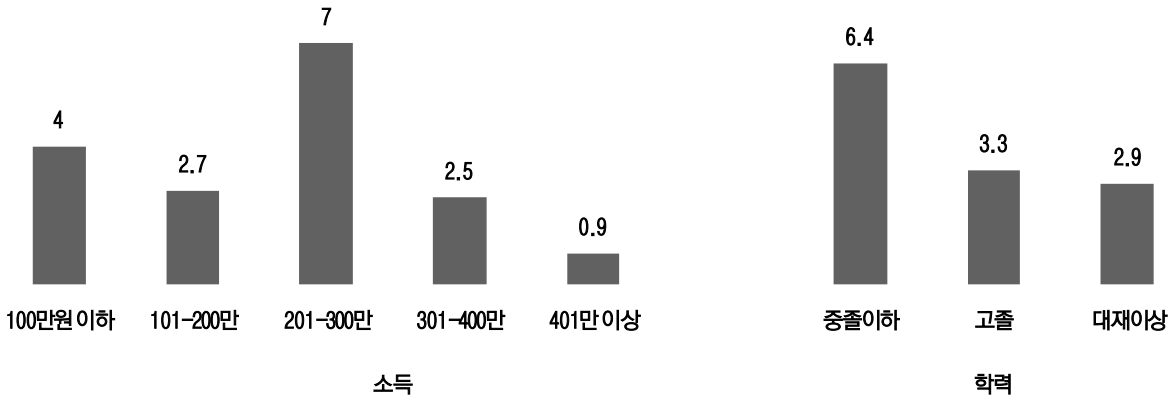
[그림 14] 지난 1년간 가족 내 우울증/정신질환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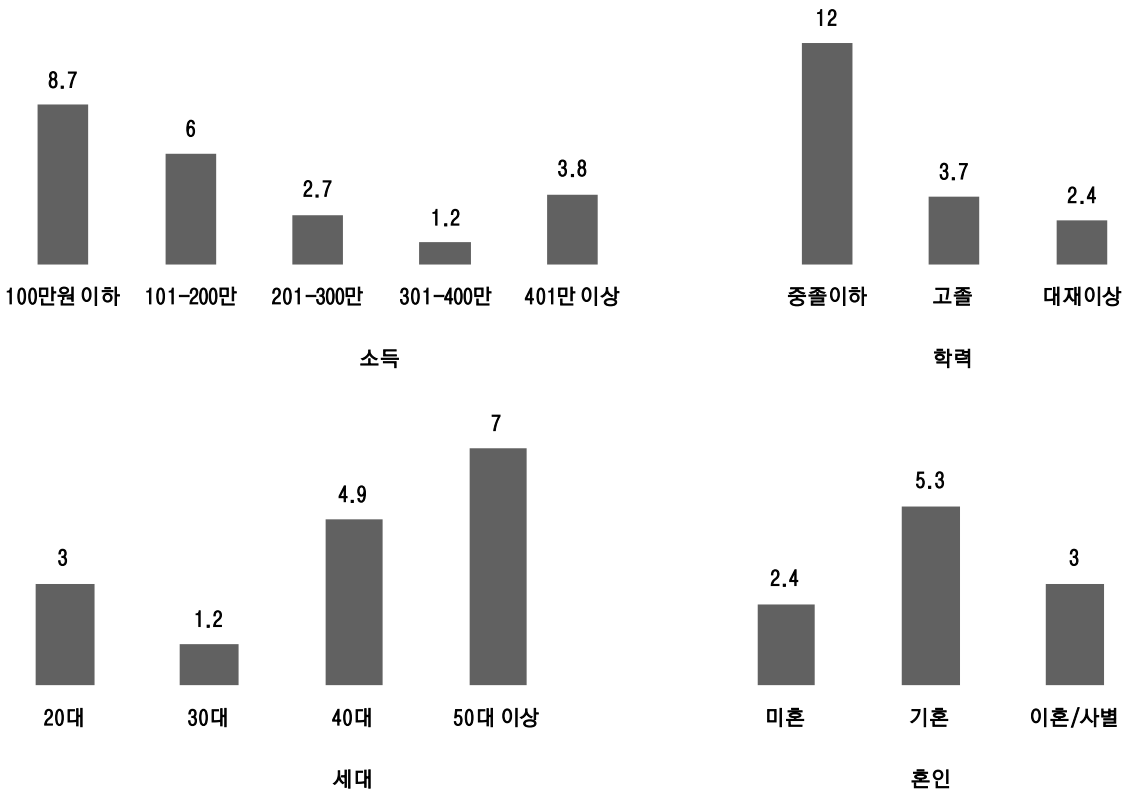
[그림 15] 지난 1년간 가족 내 자살충동경험 (%)



[그림 16] 지난 1년간 가족 내 별거/이혼 경험 (%)



[그림 17] 지난 1년간 가족 내 가족폭력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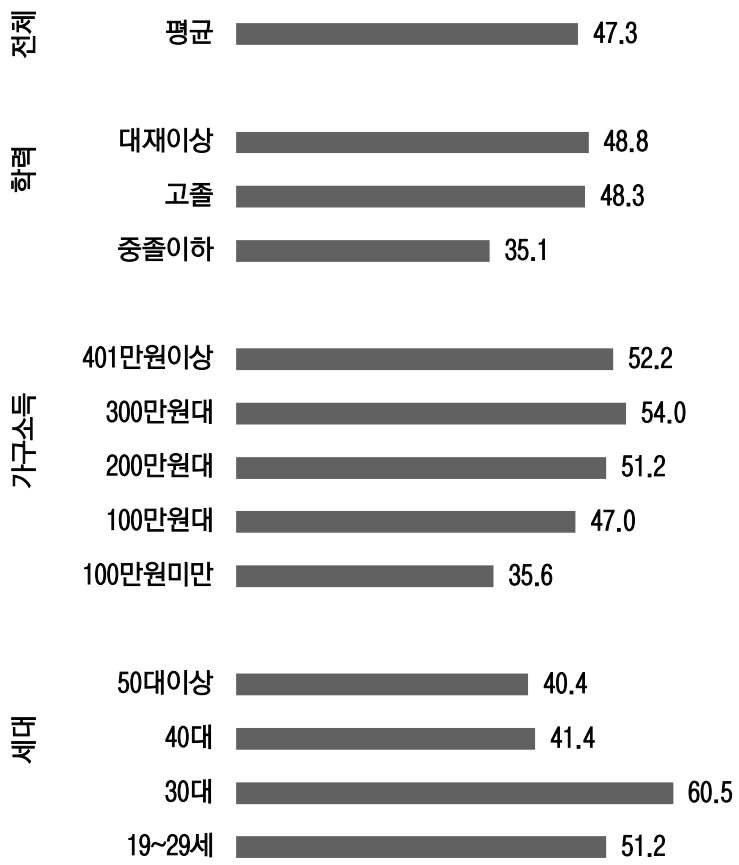


미래 전망의 양극화

조사결과가 더욱 씁쓸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들 취약계층의 경우 현재의 가정 병리현상에 더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미래 가정생활에 대한 기대에서도 비관적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1년 후에 가족 관계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47.3%였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51.3%였다.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4.0%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취약계층의 응답자들은 미래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비관적임을 알 수 있다. '지금보다 좋아질 것' 이라는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는 40.4%로 20대 51.2%, 30대의 60.5%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여준다. 1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가정생활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35.6%에 불과했지만 300만원대 소득층은 54.0%,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 52.2%와 대비된다. 학력별로도 중졸 이하의 학력계층에서는 35.1%만이 1년 후 가정상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학재학 이상의 층에서 48.8%에 달했다.

[그림 18] 연령 · 소득 · 학력별 1년 가족관계 전망 (단위 : %)[2]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은 현재의 가정생활에서도 보다 심각한 문제를 겪을 뿐 아니라 자살이나 우울증/정신질환과 같은 심각한 가정병리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적 위기상황은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위기가 개인 인생의 비관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에서 이러한 문제가 집중되고 있을 때 이를 도외시 할 경우 이들이 느낄 사회적 상실감과 절망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적, 거시적 차원의 위기대책 논의에서 탈피하여 개인과 가정의 위기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절실하다. ▧

[2] "앞으로 1년 후 가족관계는 어떠할 것으로 보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 중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참고 조사자료]

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국내외 서베이 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동아시아연구원 2009. 〈EAI · HRC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09-04: 경제위기와 가족〉
문화체육관광부(국정홍보처) 1996 · 2001 · 2006 · 2008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07~ 〈한국복지패널조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7. 〈외환위기 10년 국민의식조사〉
성균관대서베이리서치센터 2006-〈한국종합사회조사KGSS: 가족과 성역할 모듈(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한국조사)〉
한국사회학회 2006. 〈중산층관련 국민의식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여성가족패널조사〉
통계청 2008. 〈사회통계조사(보건 가족분야)〉
(http://www.nso.go.kr/board_notice/BoardAction.do?method=view&board_id=78&seq=590&num=590&parent_num=0)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National Taiwan University and the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of Academia Sinica, *Asian Barometer Survey*
(http://www.asianbarometer.org)
European Commission, *Eurobarometer Survey Series*
(http://www.gesis.org/en/services/data/survey-data/eurobarometer/)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 1988 · 1994 · 2002. *ISSP Survey Module* on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http://www.issp.org/data.shtml)
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 *World Value Survey* Series
(http://www.worldvaluessurvey.org/)

응답자 분포표

Base=전체	사례수 (명)	%
▣전 체▣	(800)	100.0
○성 별○		
남 자	(395)	49.4
여 자	(405)	50.6
○연 령○		
19 - 29 세	(164)	20.5
30 대	(177)	22.1
40 대	(181)	22.7
50 대 이 상	(277)	34.6
○학 력○		
중졸 이 하	(112)	14.0
고졸	(263)	32.9
전문대 재학 이상	(390)	48.8
모 름 / 무 응 답	(35)	4.3
○직 업○		
농 / 임 / 어 업	(27)	3.4
자 영 업	(105)	13.2
판매/영업/서비스	(81)	10.2
생산/ 기능/ 노무	(115)	14.3
사무/ 관리/ 전문	(155)	19.4
주 부	(184)	22.9
학 생	(74)	9.3
무직/기타/무응답	(59)	7.3
○가 구 소 득○		
100 만 원 이 하	(89)	11.2
101 - 200 만 원	(150)	18.7
201 - 300 만 원	(166)	20.8
301 - 400 만 원	(113)	14.1
401 만 원 이 상	(210)	26.2
기 타 / 무 응 답	(73)	9.1
○권 역○		
서 울	(170)	21.2
인 천 / 경 기	(220)	27.5
대 전 / 충 청	(80)	10.1
광 주 / 전 라	(83)	10.4
대 구 / 경 북	(84)	10.5
부산/ 울산/ 경남	(128)	16.1
강 원 / 제 주	(33)	4.2
○혼 인 상 태○		
미 혼	(206)	25.7
기 혼	(556)	69.5
이 혼 / 사 별	(32)	4.0
모 름 / 무 응 답	(7)	.9
○계 층 인 식○		
상 위 계 층	(83)	10.3
중 산 층	(359)	44.9
하 위 계 층	(345)	43.1
모 름 / 무 응 답	(13)	1.7
○국 정 운 영 평 가○		
긍 정 평 가	(272)	34.0
부 정 평 가	(502)	62.8
모 름 / 무 응 답	(25)	3.2
○이 념 성 향○		
진 보	(210)	26.3
중 도	(324)	40.5
보 수	(244)	30.4
모 름 / 무 응 답	(22)	2.8
○정 당 지 지 도○		
한 나 라 당	(276)	34.5
민 주 당	(118)	14.7
자 유 선 진 당	(25)	3.1
민주노동당	(54)	6.8
창 조 한 국 당	(14)	1.8
진 보 신 당	(23)	2.9
기 타 정 당	(17)	2.1
지지 정당 없음	(250)	31.2
모 름 / 무 응 답	(22)	2.8

[표 8] 가정 내 가장 큰 걱정거리

[문19] 요즘 ___님 댁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요?

Base=전체	사례수(명)	가족간의불화	가족의건강	가족의우울증이나정신질환	자녀교육문제	소득이나자산의감소	실업이나명예퇴직	부채나신용불량	노후대책	기타	별다른걱정거리가없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	%	%
▣전체▣	(800)	1.2	13.0	2.1	20.3	27.4	7.8	2.3	10.7	3.7	11.5	.1	100.0
○성별○													
남자	(395)	1.2	10.9	2.3	17.9	30.3	7.4	3.2	12.5	2.0	12.0	.3	100.0
여자	(405)	1.2	15.1	1.9	22.6	24.4	8.1	1.4	8.9	5.4	11.0	.0	100.0
○연령○													
19 - 29 세	(164)	1.9	13.2	2.0	7.4	38.7	7.8	.0	2.7	5.4	20.6	.4	100.0
30 대	(177)	1.8	10.5	3.9	30.5	30.4	3.7	4.4	4.7	2.7	7.4	.0	100.0
40 대	(181)	.8	6.1	.7	36.4	25.1	9.4	1.2	10.3	1.8	8.0	.0	100.0
50 대 이상	(277)	.6	19.0	2.0	10.8	20.2	9.3	3.0	19.5	4.5	11.0	.2	100.0
○학력○													
중졸이하	(112)	.0	24.3	2.9	5.6	16.6	11.5	5.2	13.6	7.9	12.3	.0	100.0
고졸	(263)	.8	12.6	1.3	22.1	30.5	6.6	3.6	14.9	2.2	5.5	.0	100.0
전문대 재학 이상	(390)	1.5	10.8	2.4	23.7	26.8	7.7	.6	7.4	3.8	15.0	.3	100.0
모름/무응답	(35)	4.8	4.5	2.3	14.9	44.8	5.4	1.9	7.5	.0	14.0	.0	100.0
○직업○													
농/임/어업	(27)	.0	30.1	2.4	21.7	23.2	3.8	2.9	4.0	.0	11.9	.0	100.0
자영업	(105)	.0	6.6	.8	17.4	30.7	7.1	4.9	16.3	5.3	10.9	.0	100.0
판매/영업/서비스	(81)	1.4	9.0	1.2	26.6	34.6	6.7	2.8	8.3	2.4	7.0	.0	100.0
생산/기능/노무	(115)	.0	14.5	2.1	19.1	27.7	7.7	5.2	15.2	1.9	6.6	.0	100.0
사무/관리/전문	(155)	.7	7.8	2.9	25.7	30.6	8.1	.5	9.0	2.6	12.1	.0	100.0
주부	(184)	2.2	18.6	1.8	23.2	20.0	7.6	1.0	11.5	5.2	8.9	.0	100.0
학생	(74)	1.1	12.6	4.4	11.3	29.4	11.4	.0	.8	5.4	22.7	.9	100.0
무직/기타/무응답	(59)	4.2	16.2	1.7	5.9	24.4	7.2	2.6	12.9	3.8	20.3	.8	100.0
○가구소득○													
100 만원 이하	(89)	.3	21.7	4.7	4.4	33.9	11.2	2.4	13.0	3.1	5.2	.0	100.0
101 - 200 만원	(150)	1.2	14.6	.3	14.7	36.5	9.5	2.1	6.8	4.3	10.1	.0	100.0
201 - 300 만원	(166)	.0	11.1	2.0	19.4	29.6	4.6	1.9	13.6	5.6	12.2	.0	100.0
301 - 400 만원	(113)	1.0	8.6	1.2	37.8	19.5	6.9	3.7	11.2	1.5	8.6	.0	100.0
401 만원 이상	(210)	2.5	12.5	3.3	25.9	19.3	8.5	2.1	9.8	2.6	13.3	.3	100.0
기타/무응답	(73)	1.6	11.9	1.1	9.7	30.9	6.4	1.5	11.2	5.3	19.8	.7	100.0
○권역○													
서울	(170)	1.4	11.9	2.6	16.9	27.8	8.6	3.1	12.7	4.0	10.9	.0	100.0
인천/경기	(220)	2.1	13.3	2.7	19.3	31.1	8.2	1.4	7.5	2.2	11.8	.5	100.0
대전/충청	(80)	.0	8.2	.0	23.9	21.4	9.2	2.1	17.8	9.1	8.4	.0	100.0
광주/전라	(83)	1.4	18.6	2.8	29.7	26.7	1.2	1.1	7.4	.8	10.1	.0	100.0
대구/경북	(84)	.0	12.9	.0	20.6	25.4	14.4	.6	9.2	4.5	12.3	.0	100.0
부산/울산/경남	(128)	1.0	9.6	2.4	17.0	24.8	6.9	4.6	13.7	4.8	15.1	.0	100.0
강원/제주	(33)	.0	27.8	3.7	22.8	31.1	.0	2.8	4.7	.0	7.2	.0	100.0
○혼인상태○													
미혼	(206)	2.2	15.3	2.9	5.0	37.7	7.2	1.7	4.7	4.4	18.7	.3	100.0
기혼	(556)	.7	12.7	1.9	26.6	23.9	7.0	2.6	11.3	3.7	9.3	.1	100.0
이혼/사별	(32)	.0	6.6	1.5	9.4	17.8	25.6	1.4	33.4	.0	4.3	.0	100.0
모름/무응답	(7)	15.5	.0	.0	10.3	40.5	.0	.0	33.7	.0	.0	.0	100.0
○계층인식○													
상위계층	(83)	.6	15.1	1.0	21.6	18.8	6.6	1.0	7.6	4.8	22.8	.0	100.0
중산층	(359)	2.0	14.8	3.1	22.7	21.7	8.3	.8	10.3	4.4	12.0	.0	100.0
하위계층	(345)	.2	10.6	1.5	18.0	35.2	7.8	4.0	11.6	2.8	8.0	.1	100.0
모름/무응답	(13)	7.9	14.6	.0	5.2	30.8	.0	4.8	17.2	.0	14.7	4.8	100.0
○국정운영평가○													
긍정평가	(272)	1.9	15.9	2.4	21.6	18.5	8.4	2.1	11.7	3.6	13.8	.2	100.0
부정평가	(502)	.9	11.3	2.1	19.9	31.6	7.3	2.4	10.0	3.7	10.7	.1	100.0
모름/무응답	(25)	.0	16.3	.0	12.6	38.3	9.2	3.5	13.5	4.6	1.9	.0	100.0
○이념성향○													
진보	(210)	1.4	10.3	1.9	22.6	28.8	5.9	4.5	10.3	3.1	11.2	.0	100.0
중도	(324)	.7	15.2	2.4	20.3	24.1	8.9	.7	11.1	4.8	11.6	.2	100.0
보수	(244)	1.7	12.1	2.2	19.7	28.7	7.4	2.5	11.5	3.0	11.2	.0	100.0
모름/무응답	(22)	.0	17.2	.0	3.4	46.4	13.5	1.9	.0	.0	15.3	2.2	100.0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276)	2.0	17.5	3.1	19.5	21.1	9.0	2.2	10.6	3.4	11.4	.2	100.0
민주당	(118)	1.5	13.1	.8	23.6	33.0	6.2	.8	10.0	.8	10.2	.0	100.0
자유선진당	(25)	.0	6.1	2.6	5.4	37.6	9.9	3.1	17.8	3.8	13.6	.0	100.0
민주노동당	(54)	.0	11.7	.0	40.0	19.6	7.7	6.4	4.2	3.1	7.3	.0	100.0
창조한국당	(14)	3.7	.0	.0	22.8	48.6	7.8	.0	11.9	5.3	.0	.0	100.0
진보신당	(23)	5.0	.0	3.5	21.3	20.3	13.4	6.2	13.9	3.4	13.0	.0	100.0
기타정당	(17)	.0	4.9	.0	11.2	54.1	5.9	.0	8.3	4.1	11.4	.0	100.0
지지정당 없음	(250)	.2	10.2	2.4	18.4	31.0	6.2	1.8	10.6	5.2	13.7	.3	100.0
모름/무응답	(22)	.0	27.3	.0	5.1	15.5	11.8	3.6	22.8	6.3	7.6	.0	100.0

[표 9]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해 주로 의지하는 대상

[문20]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해 주로 누구에게 의지 하십니까?

Base=가정 내 걱정거리가 있다고 답한 자	사례수 (명)	의지할 데가없다	나자신	가족	친척	이웃	친구나 직장동료	의사등 전문가	종교	기타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	%
▣전 체▣	(707)	9.8	27.3	40.0	.9	.3	8.2	1.8	9.3	1.7	.6	100.0
○성 별○												
남 자	(347)	10.4	35.1	36.2	.9	.0	9.9	1.1	4.6	1.4	.4	100.0
여 자	(360)	9.3	19.9	43.6	.9	.5	6.5	2.6	13.9	2.1	.7	100.0
○연 령○												
19 - 29 세	(130)	4.1	17.8	51.6	.5	.0	19.3	2.2	1.6	3.0	.0	100.0
30 대	(164)	10.5	27.8	44.1	.9	1.2	8.3	1.2	5.4	.6	.0	100.0
40 대	(167)	9.9	21.6	45.0	1.7	.0	7.2	.5	12.1	1.5	.5	100.0
50 대 이 상	(246)	12.4	35.9	27.7	.6	.0	2.9	3.0	14.1	2.0	1.3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98)	10.1	33.2	35.0	1.5	.0	3.9	2.7	11.3	1.8	.7	100.0
고 졸	(249)	15.2	23.8	33.8	1.3	.0	10.2	.6	11.8	3.0	.2	100.0
전문대 재학 이상	(331)	6.4	27.7	46.0	.5	.6	8.4	2.7	6.2	.9	.5	100.0
모 름 / 무 응 답	(30)	2.0	33.4	41.5	.0	.0	2.2	.0	16.4	.9	3.7	100.0
○직 업○												
농 / 임 / 어 업	(24)	15.2	29.1	31.6	4.3	.0	4.3	3.6	8.6	3.3	.0	100.0
자 영 업	(94)	11.8	34.7	32.7	.0	.0	4.3	.0	12.6	3.1	.9	100.0
판매/영업/서비스	(76)	8.1	35.9	35.5	.0	.0	6.8	.0	9.1	4.6	.0	100.0
생산/ 기능/ 노무	(107)	15.7	27.8	34.1	1.7	.0	15.8	.0	2.8	2.0	.0	100.0
사무/ 관리/ 전문	(137)	12.2	28.1	39.9	.8	.0	8.3	4.3	5.1	.6	.6	100.0
주 부	(167)	4.8	19.2	47.6	.9	1.2	4.4	1.7	18.5	1.1	.7	100.0
학 생	(57)	.0	20.8	51.9	1.1	.0	19.7	2.8	3.6	.0	.0	100.0
무직/기타/무응답	(46)	15.8	31.5	38.2	.9	.0	1.6	3.9	4.8	.6	2.8	100.0
○가 구 소 득○												
100 만 원 이 하	(85)	19.4	29.8	34.0	.0	.0	3.7	1.0	10.3	.9	.8	100.0
101 - 200 만 원	(135)	5.6	31.4	31.5	2.1	.7	13.2	1.7	9.4	4.3	.0	100.0
201 - 300 만 원	(146)	10.4	25.0	43.2	1.0	.0	7.3	1.7	9.7	1.8	.0	100.0
301 - 400 만 원	(103)	10.3	22.6	42.7	2.0	.0	7.9	1.2	11.4	1.1	.8	100.0
401 만 원 이 상	(181)	7.7	26.2	47.4	.0	.0	7.4	1.9	7.8	1.0	.5	100.0
기 타 / 무 응 답	(58)	10.1	32.3	32.3	.0	1.7	8.0	4.9	7.8	.0	2.9	100.0
○권 역○												
서 울	(151)	11.7	29.2	40.0	1.9	.0	4.8	2.8	7.1	2.1	.4	100.0
인 천 / 경 기	(193)	7.9	24.0	40.8	.6	1.0	10.5	.4	11.5	2.9	.4	100.0
대 전 / 충 청	(74)	12.6	34.8	31.9	.0	.0	6.1	4.3	8.1	2.2	.0	100.0
광 주 / 전 라	(75)	5.0	33.0	37.9	.0	.0	2.7	4.7	16.7	.0	.0	100.0
대 구 / 경 북	(74)	12.6	26.6	36.3	1.4	.0	10.2	.8	8.6	.0	3.6	100.0
부산/ 울산/ 경남	(109)	13.2	19.6	46.1	1.3	.0	13.8	.5	4.7	.8	.0	100.0
강 원 / 제 주	(31)	.0	36.5	46.4	.0	.0	4.0	.0	9.7	3.4	.0	100.0
○혼 인 상 태○												
미 혼	(167)	3.6	20.0	53.9	1.0	.0	16.5	2.1	2.0	.8	.0	100.0
기 혼	(503)	11.1	28.3	37.3	.9	.4	5.9	1.9	11.3	2.2	.8	100.0
이 혼 / 사 별	(30)	21.9	54.4	15.4	.0	.0	2.3	.0	6.0	.0	.0	100.0
모 름 / 무 응 답	(7)	18.0	17.4	10.2	.0	.0	.0	.0	54.4	.0	.0	100.0
○계 층 인 식○												
상 위 계 층	(64)	4.3	37.4	39.5	1.0	.0	6.4	1.3	7.1	3.0	.0	100.0
중 산 층	(316)	6.9	25.5	43.2	.5	.3	9.5	2.8	9.6	1.1	.5	100.0
하 위 계 층	(316)	13.1	27.1	38.0	1.4	.3	7.5	1.1	8.9	2.1	.5	100.0
모 름 / 무 응 답	(11)	31.8	28.7	6.5	.0	.0	.0	.0	26.7	.0	6.4	100.0
○국 정 운 영 평 가○												
긍 정 평 가	(234)	9.9	31.5	33.7	.9	.0	3.9	1.7	15.7	1.3	1.4	100.0
부 정 평 가	(448)	9.2	24.9	44.1	1.0	.4	10.5	1.7	6.1	1.9	.2	100.0
모 름 / 무 응 답	(25)	22.0	32.0	24.3	.0	.0	7.5	4.8	6.4	3.1	.0	100.0
○이 념 성 향○												
진 보	(187)	9.2	26.4	44.8	.6	1.0	7.8	.8	7.0	2.0	.3	100.0
중 도	(286)	10.8	24.0	40.4	1.0	.0	9.6	3.2	8.6	2.0	.3	100.0
보 수	(216)	8.1	32.3	37.2	1.2	.0	6.6	.7	12.3	1.2	.4	100.0
모 름 / 무 응 답	(18)	22.3	31.1	16.5	.0	.0	7.0	4.7	8.8	.0	9.7	100.0
○정 당 지 지 도○												
한 나 라 당	(244)	7.7	28.3	37.4	1.8	.4	6.0	2.1	14.5	.9	1.1	100.0
민 주 당	(106)	10.3	20.0	45.7	.0	.0	11.3	.7	9.4	2.6	.0	100.0
자 유 선 진 당	(22)	.0	35.0	47.3	.0	.0	17.7	.0	.0	.0	.0	100.0
민 주 노 동 당	(50)	4.4	31.0	45.2	2.1	.0	9.2	.0	6.0	2.1	.0	100.0
창 조 한 국 당	(14)	.0	12.1	42.9	7.2	.0	29.3	.0	8.4	.0	.0	100.0
진 보 신 당	(20)	3.9	35.2	35.2	.0	4.9	12.5	4.0	4.2	.0	.0	100.0
기 타 정 당	(15)	8.5	5.1	69.6	.0	.0	.0	5.6	4.6	6.6	.0	100.0
지지 정당 없음	(215)	15.4	30.9	36.9	.0	.0	5.7	1.7	6.6	2.4	.4	100.0
모 름 / 무 응 답	(21)	12.1	19.1	34.2	.0	.0	17.7	9.6	4.0	.0	3.3	100.0

[표 10] 지난 1년 동안 경험 여부 - 가족 간의 폭력

[문21-1] ___님이나 ___님의 가족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1. 가족간의 폭력

Base=전체	사례수 (명)	경험해본 적이있다	경험해본 적이없다	계
		%	%	%
▣전 체▣	(800)	4.4	95.6	100.0
○성 별○				
남 자	(395)	4.3	95.7	100.0
여 자	(405)	4.5	95.5	100.0
○연 령○				
19 - 29 세	(164)	3.0	97.0	100.0
30 대	(177)	1.2	98.8	100.0
40 대	(181)	4.9	95.1	100.0
50 대 이 상	(277)	7.0	93.0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112)	12.0	88.0	100.0
고 졸	(263)	3.7	96.3	100.0
전문대 재학 이상	(390)	2.4	97.6	100.0
모 름 / 무 응 답	(35)	7.0	93.0	100.0
○직 업○				
농 / 임 / 어 업	(27)	10.9	89.1	100.0
자 영 업	(105)	7.1	92.9	100.0
판매/영업/서비스	(81)	4.0	96.0	100.0
생산/ 기능/ 노무	(115)	5.0	95.0	100.0
사무/ 관리/ 전문	(155)	1.3	98.7	100.0
주 부	(184)	4.5	95.5	100.0
학 생	(74)	3.6	96.4	100.0
무직/기타/무응답	(59)	5.0	95.0	100.0
○가 구 소 득○				
100 만 원 이 하	(89)	8.7	91.3	100.0
101 - 200 만 원	(150)	6.0	94.0	100.0
201 - 300 만 원	(166)	2.7	97.3	100.0
301 - 400 만 원	(113)	1.2	98.8	100.0
401 만 원 이 상	(210)	3.8	96.2	100.0
기 타 / 무 응 답	(73)	6.6	93.4	100.0
○권 역○				
서 울	(170)	4.2	95.8	100.0
인 천 / 경 기	(220)	5.0	95.0	100.0
대 전 / 충 청	(80)	2.5	97.5	100.0
광 주 / 전 라	(83)	4.3	95.7	100.0
대 구 / 경 북	(84)	5.8	94.2	100.0
부 산/ 울 산/ 경 남	(128)	4.0	96.0	100.0
강 원 / 제 주	(33)	4.5	95.5	100.0
○혼 인 상 태○				
미 혼	(206)	2.4	97.6	100.0
기 혼	(556)	5.3	94.7	100.0
이 혼 / 사 별	(32)	3.0	97.0	100.0
모 름 / 무 응 답	(7)	.0	100.0	100.0
○계 층 인 식○				
상 위 계 층	(83)	7.1	92.9	100.0
중 산 층	(359)	4.2	95.8	100.0
하 위 계 층	(345)	3.8	96.2	100.0
모 름 / 무 응 답	(13)	9.4	90.6	100.0
○국 정 운 영 평 가○				
긍 정 평 가	(272)	6.3	93.7	100.0
부 정 평 가	(502)	3.3	96.7	100.0
모 름 / 무 응 답	(25)	5.1	94.9	100.0
○이 념 성 향○				
진 보	(210)	4.4	95.6	100.0
중 도	(324)	4.7	95.3	100.0
보 수	(244)	4.1	95.9	100.0
모 름 / 무 응 답	(22)	3.5	96.5	100.0
○정 당 지 지 도○				
한 나 라 당	(276)	5.1	94.9	100.0
민 주 당	(118)	4.5	95.5	100.0
자 유 선 진 당	(25)	.0	100.0	100.0
민 주 노 동 당	(54)	5.1	94.9	100.0
창 조 한 국 당	(14)	5.4	94.6	100.0
진 보 신 당	(23)	.0	100.0	100.0
기 타	(17)	4.6	95.4	100.0
지지 정당 없음	(250)	4.3	95.7	100.0
모 름 / 무 응 답	(22)	2.5	97.5	100.0

[표 11] 지난 1년 동안 경험 여부 - 별거나 이혼

[문21-2] ___님이나 ___님의 가족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2. 별거나 이혼

Base=전체	사례수 (명)	경험해본 적이있다	경험해본 적이없다	계
		%	%	%
▣전 체▣	(800)	3.5	96.5	100.0
○성 별○				
남 자	(395)	4.8	95.2	100.0
여 자	(405)	2.1	97.9	100.0
○연 령○				
19 - 29 세	(164)	.0	100.0	100.0
30 대	(177)	3.2	96.8	100.0
40 대	(181)	2.9	97.1	100.0
50 대 이 상	(277)	6.0	94.0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112)	6.4	93.6	100.0
고 졸	(263)	3.3	96.7	100.0
전문대 재학 이상	(390)	2.9	97.1	100.0
모 름 / 무 응 답	(35)	1.4	98.6	100.0
○직 업○				
농 / 임 / 어 업	(27)	3.0	97.0	100.0
자 영 업	(105)	6.0	94.0	100.0
판매/영업/서비스	(81)	2.4	97.6	100.0
생산/ 기능/ 노무	(115)	9.8	90.2	100.0
사무/ 관리/ 전문	(155)	1.4	98.6	100.0
주 부	(184)	2.0	98.0	100.0
학 생	(74)	.0	100.0	100.0
무직/기타/무응답	(59)	2.6	97.4	100.0
○가 구 소 득○				
100 만 원 이 하	(89)	4.0	96.0	100.0
101 - 200 만 원	(150)	2.7	97.3	100.0
201 - 300 만 원	(166)	7.0	93.0	100.0
301 - 400 만 원	(113)	2.5	97.5	100.0
401 만 원 이 상	(210)	.9	99.1	100.0
기 타 / 무 응 답	(73)	5.1	94.9	100.0
○권 역○				
서 울	(170)	4.8	95.2	100.0
인 천 / 경 기	(220)	3.3	96.7	100.0
대 전 / 충 청	(80)	1.7	98.3	100.0
광 주 / 전 라	(83)	3.3	96.7	100.0
대 구 / 경 북	(84)	2.8	97.2	100.0
부 산/ 울 산/ 경 남	(128)	2.6	97.4	100.0
강 원 / 제 주	(33)	7.3	92.7	100.0
○혼 인 상 태○				
미 혼	(206)	.0	100.0	100.0
기 혼	(556)	2.6	97.4	100.0
이 혼 / 사 별	(32)	40.9	59.1	100.0
모 름 / 무 응 답	(7)	7.2	92.8	100.0
○계 층 인 식○				
상 위 계 층	(83)	3.9	96.1	100.0
중 산 층	(359)	4.1	95.9	100.0
하 위 계 층	(345)	2.6	97.4	100.0
모 름 / 무 응 답	(13)	3.6	96.4	100.0
○국 정 운 영 평 가○				
긍 정 평 가	(272)	5.7	94.3	100.0
부 정 평 가	(502)	2.1	97.9	100.0
모 름 / 무 응 답	(25)	7.1	92.9	100.0
○이 념 성 향○				
진 보	(210)	4.9	95.1	100.0
중 도	(324)	3.2	96.8	100.0
보 수	(244)	2.5	97.5	100.0
모 름 / 무 응 답	(22)	4.8	95.2	100.0
○정 당 지 지 도○				
한 나 라 당	(276)	3.3	96.7	100.0
민 주 당	(118)	4.9	95.1	100.0
자 유 선 진 당	(25)	3.4	96.6	100.0
민 주 노 동 당	(54)	.0	100.0	100.0
창 조 한 국 당	(14)	.0	100.0	100.0
진 보 신 당	(23)	.0	100.0	100.0
기 타	(17)	.0	100.0	100.0
지지 정당 없음	(250)	3.9	96.1	100.0
모 름 / 무 응 답	(22)	10.2	89.8	100.0

[표 12] 지난 1년 동안 경험 여부 -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문21-3] ___님이나 ___님의 가족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3.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Base=전체	사례수 (명)	경험해본 적이있다	경험해본 적이없다	무응답	계
		%	%	%	%
▣전 체▣	(800)	8.5	91.4	.2	100.0
○성 별○					
남 자	(395)	6.6	93.3	.1	100.0
여 자	(405)	10.3	89.5	.3	100.0
○연 령○					
19 - 29 세	(164)	5.7	94.3	.0	100.0
30 대	(177)	3.2	96.8	.0	100.0
40 대	(181)	6.2	93.8	.0	100.0
50 대 이 상	(277)	15.0	84.6	.5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112)	16.6	83.1	.3	100.0
고 졸	(263)	8.5	91.2	.4	100.0
전문대 재학 이상	(390)	6.2	93.8	.0	100.0
모 름 / 무 응 답	(35)	7.3	92.7	.0	100.0
○직 업○					
농 / 임 / 어 업	(27)	7.6	92.4	.0	100.0
자 영 업	(105)	6.4	93.6	.0	100.0
판매/영업/서비스	(81)	7.9	92.1	.0	100.0
생산/ 기능/ 노무	(115)	8.9	91.1	.0	100.0
사무/ 관리/ 전문	(155)	5.6	94.4	.0	100.0
주 부	(184)	9.2	90.2	.6	100.0
학 생	(74)	9.1	90.9	.0	100.0
무직/기타/무응답	(59)	16.8	82.6	.6	100.0
○가 구 소 득○					
100 만 원 이 하	(89)	15.9	83.7	.4	100.0
101 - 200 만 원	(150)	8.4	91.6	.0	100.0
201 - 300 만 원	(166)	9.3	90.7	.0	100.0
301 - 400 만 원	(113)	4.7	94.3	.9	100.0
401 만 원 이 상	(210)	5.4	94.6	.0	100.0
기 타 / 무 응 답	(73)	12.1	87.9	.0	100.0
○권 역○					
서 울	(170)	8.1	91.9	.0	100.0
인 천 / 경 기	(220)	7.9	91.6	.5	100.0
대 전 / 충 청	(80)	5.8	93.8	.4	100.0
광 주 / 전 라	(83)	15.2	84.8	.0	100.0
대 구 / 경 북	(84)	8.8	91.2	.0	100.0
부산/ 울산/ 경남	(128)	6.6	93.4	.0	100.0
강 원 / 제 주	(33)	9.7	90.3	.0	100.0
○혼 인 상 태○					
미 혼	(206)	6.9	93.1	.0	100.0
기 혼	(556)	8.0	91.8	.2	100.0
이 혼 / 사 별	(32)	28.6	71.4	.0	100.0
모 름 / 무 응 답	(7)	.0	100.0	.0	100.0
○계 층 인 식○					
상 위 계 층	(83)	9.3	90.7	.0	100.0
중 산 층	(359)	9.0	90.8	.3	100.0
하 위 계 층	(345)	8.0	91.9	.1	100.0
모 름 / 무 응 답	(13)	2.6	97.4	.0	100.0
○국 정 운 영 평 가○					
긍 정 평 가	(272)	9.3	90.3	.4	100.0
부 정 평 가	(502)	7.8	92.1	.1	100.0
모 름 / 무 응 답	(25)	12.5	87.5	.0	100.0
○이 념 성 향○					
진 보	(210)	9.6	90.2	.2	100.0
중 도	(324)	8.1	91.6	.3	100.0
보 수	(244)	7.2	92.8	.0	100.0
모 름 / 무 응 답	(22)	17.1	82.9	.0	100.0
○정 당 지 지 도○					
한 나 라 당	(276)	9.8	89.9	.4	100.0
민 주 당	(118)	7.5	92.2	.3	100.0
자 유 선 진 당	(25)	4.7	95.3	.0	100.0
민 주 노 동 당	(54)	3.7	96.3	.0	100.0
창 조 한 국 당	(14)	13.7	86.3	.0	100.0
진 보 신 당	(23)	3.5	96.5	.0	100.0
기 타	(17)	4.6	95.4	.0	100.0
지지 정당 없음	(250)	9.1	90.9	.0	100.0
모 름 / 무 응 답	(22)	10.5	89.5	.0	100.0

[표 13] 지난 1년 동안 경험 여부 - 자살 생각

[문21-4] ___님이나 ___님의 가족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4. 자살 생각

Base=전체	사례수 (명)	경험해본 적이있다	경험해본 적이없다	무응답	계
		%	%	%	%
▣전 체▣	(800)	6.2	93.4	.4	100.0
○성 별○					
남 자	(395)	4.5	94.8	.8	100.0
여 자	(405)	8.0	92.0	.0	100.0
○연 령○					
19 - 29 세	(164)	5.7	93.9	.5	100.0
30 대	(177)	1.5	98.5	.0	100.0
40 대	(181)	4.6	94.9	.5	100.0
50 대 이 상	(277)	10.7	88.8	.5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112)	10.8	88.1	1.1	100.0
고 졸	(263)	9.6	90.3	.2	100.0
전문대 재학 이상	(390)	2.9	96.8	.4	100.0
모 름 / 무 응 답	(35)	4.0	96.0	.0	100.0
○직 업○					
농 / 임 / 어 업	(27)	10.2	88.0	1.7	100.0
자 영 업	(105)	5.2	94.0	.8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81)	10.1	89.9	.0	100.0
생산/ 기능/ 노무	(115)	5.0	95.0	.0	100.0
사무/ 관리/ 전문	(155)	3.3	96.7	.0	100.0
주 부	(184)	7.2	92.8	.0	100.0
학 생	(74)	7.3	91.6	1.1	100.0
무직/기타/무응답	(59)	7.0	91.4	1.6	100.0
○가 구 소 득○					
100 만 원 이 하	(89)	16.3	82.8	.9	100.0
101 - 200 만 원	(150)	5.9	94.1	.0	100.0
201 - 300 만 원	(166)	4.2	95.4	.4	100.0
301 - 400 만 원	(113)	3.9	96.1	.0	100.0
401 만 원 이 상	(210)	2.3	97.3	.4	100.0
기 타 / 무 응 답	(73)	14.4	84.5	1.1	100.0
○권 역○					
서 울	(170)	6.7	92.5	.8	100.0
인 천 / 경 기	(220)	6.8	92.8	.4	100.0
대 전 / 충 청	(80)	4.2	95.3	.4	100.0
광 주 / 전 라	(83)	9.9	90.1	.0	100.0
대 구 / 경 북	(84)	5.1	94.9	.0	100.0
부산/ 울산/ 경남	(128)	5.3	94.7	.0	100.0
강 원 / 제 주	(33)	2.4	96.2	1.4	100.0
○혼 인 상 태○					
미 혼	(206)	5.2	94.2	.6	100.0
기 혼	(556)	6.0	93.7	.3	100.0
이 혼 / 사 별	(32)	19.4	80.6	.0	100.0
모 름 / 무 응 답	(7)	.0	100.0	.0	100.0
○계 층 인 식○					
상 위 계 층	(83)	6.4	92.5	1.1	100.0
중 산 층	(359)	4.9	95.1	.0	100.0
하 위 계 층	(345)	7.9	91.5	.6	100.0
모 름 / 무 응 답	(13)	.0	100.0	.0	100.0
○국 정 운 영 평 가○					
긍 정 평 가	(272)	6.1	93.2	.7	100.0
부 정 평 가	(502)	5.9	93.9	.2	100.0
모 름 / 무 응 답	(25)	14.8	85.2	.0	100.0
○이 념 성 향○					
진 보	(210)	8.6	90.2	1.2	100.0
중 도	(324)	4.8	95.2	.0	100.0
보 수	(244)	6.0	93.8	.2	100.0
모 름 / 무 응 답	(22)	8.9	91.1	.0	100.0
○정 당 지 지 도○					
한 나 라 당	(276)	7.0	92.8	.2	100.0
민 주 당	(118)	5.1	93.5	1.4	100.0
자 유 선 진 당	(25)	6.0	94.0	.0	100.0
민 주 노 동 당	(54)	2.2	97.8	.0	100.0
창 조 한 국 당	(14)	.0	100.0	.0	100.0
진 보 신 당	(23)	8.3	91.7	.0	100.0
기 타	(17)	.0	100.0	.0	100.0
지지 정당 없음	(250)	8.0	91.7	.3	100.0
모 름 / 무 응 답	(22)	.0	100.0	.0	100.0

[표 14]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문22] ___님께서는 가정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Base=전체	사례수 (명)	①매우만족한다	②대체로만족한다	①+②	③별로만족하지않는다	④전혀만족하지않는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800)	25.9	61.8	87.8	10.7	1.0	11.7	.5	100.0
○성 별○									
남 자	(395)	29.0	59.6	88.6	10.3	.7	10.9	.4	100.0
여 자	(405)	23.0	64.0	86.9	11.1	1.4	12.5	.5	100.0
○연 령○									
19 - 29 세	(164)	32.5	53.8	86.3	12.5	1.2	13.7	.0	100.0
30 대	(177)	28.8	62.3	91.1	8.7	.2	8.9	.0	100.0
40 대	(181)	30.2	61.3	91.5	7.1	1.0	8.1	.5	100.0
50 대 이 상	(277)	17.4	66.7	84.1	13.3	1.5	14.8	1.1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112)	12.1	65.2	77.3	15.5	4.4	19.9	2.8	100.0
고 졸	(263)	23.9	64.4	88.3	10.9	.5	11.4	.3	100.0
전문대 재학 이상	(390)	31.4	58.5	90.0	9.5	.5	10.0	.0	100.0
모 름 / 무 응 답	(35)	24.5	68.5	93.0	7.0	.0	7.0	.0	100.0
○직 업○									
농 / 임 / 어 업	(27)	14.3	70.6	84.9	11.9	.0	11.9	3.3	100.0
자 영 업	(105)	26.1	62.5	88.7	9.5	1.0	10.5	.8	100.0
판매/영업/서비스	(81)	25.8	59.8	85.7	12.8	1.6	14.3	.0	100.0
생산/ 기능/ 노무	(115)	22.6	67.4	90.1	6.4	3.5	9.9	.0	100.0
사무/ 관리/ 전문	(155)	30.9	62.9	93.8	6.2	.0	6.2	.0	100.0
주 부	(184)	23.8	60.8	84.6	14.2	.0	14.2	1.2	100.0
학 생	(74)	29.9	60.5	90.3	8.8	.9	9.7	.0	100.0
무직/기타/무응답	(59)	26.0	50.6	76.6	21.3	2.1	23.4	.0	100.0
○가 구 소 득○									
100 만 원 이 하	(89)	11.3	65.5	76.8	15.2	5.5	20.7	2.5	100.0
101 - 200 만 원	(150)	22.2	62.0	84.2	15.2	.7	15.8	.0	100.0
201 - 300 만 원	(166)	22.7	65.1	87.8	10.9	.8	11.7	.5	100.0
301 - 400 만 원	(113)	31.9	61.7	93.6	6.4	.0	6.4	.0	100.0
401 만 원 이 상	(210)	35.5	57.9	93.4	5.8	.3	6.1	.4	100.0
기 타 / 무 응 답	(73)	22.1	61.1	83.2	16.3	.5	16.8	.0	100.0
○권 역○									
서 울	(170)	25.9	60.6	86.5	11.4	1.1	12.4	1.0	100.0
인 천 / 경 기	(220)	24.8	61.9	86.7	12.0	1.3	13.3	.0	100.0
대 전 / 충 청	(80)	27.4	62.2	89.6	10.0	.4	10.4	.0	100.0
광 주 / 전 라	(83)	27.3	60.0	87.3	8.8	1.2	10.0	2.7	100.0
대 구 / 경 북	(84)	27.4	61.8	89.2	10.8	.0	10.8	.0	100.0
부산/ 울산/ 경남	(128)	28.6	62.1	90.7	7.6	1.7	9.3	.0	100.0
강 원 / 제 주	(33)	12.6	70.5	83.2	16.8	.0	16.8	.0	100.0
○혼 인 상 태○									
미 혼	(206)	29.0	58.7	87.7	11.2	1.1	12.3	.0	100.0
기 혼	(556)	25.9	62.7	88.5	9.8	.9	10.7	.7	100.0
이 혼 / 사 별	(32)	2.3	69.7	72.1	25.2	2.8	27.9	.0	100.0
모 름 / 무 응 답	(7)	47.6	52.4	100.0	.0	.0	.0	.0	100.0
○계 층 인 식○									
상 위 계 층	(83)	42.7	48.2	90.9	7.8	1.2	9.1	.0	100.0
중 산 층	(359)	26.1	65.6	91.7	7.5	.5	8.0	.2	100.0
하 위 계 층	(345)	21.3	61.8	83.1	15.2	.8	16.0	.9	100.0
모 름 / 무 응 답	(13)	36.3	44.6	80.9	.0	19.1	19.1	.0	100.0
○국 정 운 영 평 가○									
긍 정 평 가	(272)	28.4	58.6	87.0	10.9	1.5	12.4	.6	100.0
부 정 평 가	(502)	24.6	63.9	88.6	10.1	.8	11.0	.4	100.0
모 름 / 무 응 답	(25)	25.0	55.3	80.3	19.7	.0	19.7	.0	100.0
○이 념 성 향○									
진 보	(210)	24.4	66.5	90.8	8.5	.0	8.5	.7	100.0
중 도	(324)	26.1	62.3	88.4	10.1	1.2	11.4	.3	100.0
보 수	(244)	27.7	58.3	86.0	12.6	.7	13.3	.7	100.0
모 름 / 무 응 답	(22)	18.7	50.3	69.0	19.5	11.5	31.0	.0	100.0
○정 당 지 지 도○									
한 나 라 당	(276)	26.3	59.8	86.1	11.4	1.6	13.1	.8	100.0
민 주 당	(118)	29.3	56.3	85.6	11.3	2.4	13.7	.7	100.0
자 유 선 진 당	(25)	21.5	69.1	90.6	9.4	.0	9.4	.0	100.0
민 주 노 동 당	(54)	35.7	61.3	97.0	3.0	.0	3.0	.0	100.0
창 조 한 국 당	(14)	16.7	68.9	85.6	14.4	.0	14.4	.0	100.0
진 보 신 당	(23)	33.7	52.2	85.9	14.1	.0	14.1	.0	100.0
기 타	(17)	38.6	61.4	100.0	.0	.0	.0	.0	100.0
지지 정당 없음	(250)	22.2	66.2	88.4	11.5	.1	11.6	.0	100.0
모 름 / 무 응 답	(22)	15.4	65.7	81.1	12.8	2.3	15.1	3.8	100.0

[표 15] 향후 1년 후 가족관계 전망

[문23] 앞으로 1년 후에 가족 관계는 어떠할 것으로 보시나요?

Base=전체	사례수 (명)	지금보다 좋아질것이다	지금과비슷할것이다	지금보다 나빠질것이다	모름/무응답	계
		%	%	%	%	%
▣전 체▣	(800)	47.3	47.3	4.0	1.4	100.0
○성 별○						
남 자	(395)	51.9	42.3	4.5	1.2	100.0
여 자	(405)	42.8	52.3	3.4	1.5	100.0
○연 령○						
19 - 29 세	(164)	50.9	45.9	3.2	.0	100.0
30 대	(177)	60.6	37.7	1.1	.6	100.0
40 대	(181)	41.5	52.0	5.9	.6	100.0
50 대 이 상	(277)	40.5	51.3	4.9	3.2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112)	35.2	50.3	8.8	5.7	100.0
고 졸	(263)	48.3	48.1	3.2	.4	100.0
전문대 재학 이상	(390)	48.8	47.7	3.1	.4	100.0
모 름 / 무 응 답	(35)	62.8	28.0	3.2	6.0	100.0
○직 업○						
농 / 임 / 어 업	(27)	56.8	35.9	7.3	.0	100.0
자 영 업	(105)	40.7	50.7	6.7	1.9	100.0
판매/영업/서비스	(81)	52.1	43.9	2.8	1.2	100.0
생산/ 기능/ 노무	(115)	49.0	44.3	6.8	.0	100.0
사무/ 관리/ 전문	(155)	57.6	40.5	1.9	.0	100.0
주 부	(184)	44.0	52.4	.9	2.7	100.0
학 생	(74)	36.0	59.8	4.2	.0	100.0
무직/기타/무응답	(59)	42.8	44.0	8.1	5.2	100.0
○가 구 소 득○						
100 만 원 이 하	(89)	35.6	53.0	7.4	4.0	100.0
101 - 200 만 원	(150)	46.6	49.8	2.6	1.0	100.0
201 - 300 만 원	(166)	51.0	45.7	3.3	.0	100.0
301 - 400 만 원	(113)	53.9	40.7	4.5	.9	100.0
401 만 원 이 상	(210)	51.9	46.4	1.6	.0	100.0
기 타 / 무 응 답	(73)	31.4	51.9	10.0	6.7	100.0
○권 역○						
서 울	(170)	48.7	43.3	5.8	2.2	100.0
인 천 / 경 기	(220)	44.5	50.6	3.0	1.9	100.0
대 전 / 충 청	(80)	44.4	48.7	5.3	1.7	100.0
광 주 / 전 라	(83)	57.7	37.8	4.6	.0	100.0
대 구 / 경 북	(84)	45.4	48.8	4.9	.8	100.0
부산/ 울산/ 경남	(128)	49.6	48.3	1.3	.8	100.0
강 원 / 제 주	(33)	36.6	59.8	3.6	.0	100.0
○혼 인 상 태○						
미 혼	(206)	52.2	44.7	3.1	.0	100.0
기 혼	(556)	46.2	47.8	4.3	1.7	100.0
이 혼 / 사 별	(32)	28.1	63.9	4.1	4.0	100.0
모 름 / 무 응 답	(7)	81.2	11.6	.0	7.2	100.0
○계 층 인 식○						
상 위 계 층	(83)	53.2	46.8	.0	.0	100.0
중 산 층	(359)	49.5	47.0	2.9	.6	100.0
하 위 계 층	(345)	43.6	48.1	6.2	2.1	100.0
모 름 / 무 응 답	(13)	47.2	41.4	.0	11.4	100.0
○국 정 운 영 평 가○						
긍 정 평 가	(272)	50.6	44.7	2.5	2.1	100.0
부 정 평 가	(502)	45.2	49.4	4.6	.8	100.0
모 름 / 무 응 답	(25)	54.2	34.3	7.5	4.0	100.0
○이 념 성 향○						
진 보	(210)	48.6	45.2	5.2	1.0	100.0
중 도	(324)	45.2	49.1	5.0	.7	100.0
보 수	(244)	50.6	45.4	1.8	2.1	100.0
모 름 / 무 응 답	(22)	30.7	62.7	.0	6.6	100.0
○정 당 지 지 도○						
한 나 라 당	(276)	47.3	49.2	2.8	.6	100.0
민 주 당	(118)	52.0	45.0	3.0	.0	100.0
자 유 선 진 당	(25)	58.5	39.6	1.9	.0	100.0
민 주 노 동 당	(54)	57.7	36.9	5.4	.0	100.0
창 조 한 국 당	(14)	26.7	73.3	.0	.0	100.0
진 보 신 당	(23)	55.8	35.0	4.9	4.3	100.0
기 타	(17)	46.8	48.8	4.4	.0	100.0
지지 정당 없음	(250)	42.0	49.9	5.6	2.5	100.0
모 름 / 무 응 답	(22)	49.0	37.5	4.5	9.0	100.0

100-786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재단법인동아시아연구원